

# 루오웨이썩(羅偉章)의 소설을 통해 본 農民工의 자아정체성\*

千賢耕\*\*

---

## ◁ 목 차 ▷

- I. 고향상실 시대의 농민공
  - II. 빈곤 탈출 - 잃어버린 고향
  - III. 도시의 삶 - 정체성의 변화
    - 1. 도시 진입과 정체성 혼란
    - 2. 타협과 다중정체성
  - IV. 귀향 - 또 다른 유랑
  - V. 맺으며
- 

## I. 고향상실 시대의 농민공

현재 중국은 여러 면에서 경탄과 우려를 자아낸다. 문화대혁명 이후 민족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기간 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제모델이 되고 있다. 반면에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화 과정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았고, 특히 도시의 편파적 발전은 전 국민의 20%가 넘는<sup>1)</sup> 엄청난 숫자의 '농민공(혹은 민공)'을 탄생시켰다. 도-농간의 불균형, 양자의 분리 발전으로 초래된 불평등은 중국 전체 사회의 양극화 심화라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숫자의 농민공은 중국 건설의 주춧돌이 되어왔지만, 반면 농촌의 불안정성과 노동력의 비합리적 분포 등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체류자'·'뿌리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6880).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1) 2014년 人力資源社會保障部(인사부) 통계에 의하면 2억 7천만 명에 육박하고, 이는 중국 총인구를 13억 6천72만 명으로 계산할 때 20%에 달한다.

없는 유랑자'의 신분으로 고향을 잃은 상실 시대의 불안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향을 떠난 농민공에게 도시는 비인간적일 정도로 열악한 삶의 공간이자,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며, 고향과는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며 적응해가야 하는 낯선 대상인 것이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 하이데거는 이 시대를 고향상실(Heimatlosigkeit)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그에게 있어서 현대는 니힐리즘과 고향상실의 시대다. 니힐리즘의 시대란 '니힐(nihil)', 즉 공허한 無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고향은 나에게 친숙하고 낮은 장소, 그래서 내가 아무런 두려움과 긴장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다. 즉 현대란 공허와 고향상실로 인한 두려움과 긴장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이다.<sup>3)</sup>

현 중국 문단에는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신분으로 생존을 위해 떠도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하고 열악한 삶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그려낸 문학작품들이 활기차게 발표되고 있고, 이들은 '하층 서사(底層敘事)', 혹은 '민간 서사'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뤼웨이장(羅偉章)은 '하층서사(底層敘事, 민간 내러티브)'의 대표작가로 꼽힌다.<sup>4)</sup> 그의 소설작품의 대부분은 생존선상에서 고통 받는 하층민의 굴곡지고 고난스러운 삶과 운명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일부 평론가들은 그를 '하층서사'의 대표작가로 꼽거나, 그의 작품을 '苦難소설'이라 칭하기도 하고,<sup>5)</sup> 그의 작품이 농민 혹은 농민공을 주인공으로 삼기에 '노동(농민공)문학'이라 칭하기도 하며<sup>6)</sup>, 상처 입어

2) 박찬국 <현대에 있어서 고향상실의 극복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 하이데거의 교수취임 강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1995년, 5기, 83쪽.

3) 박찬국 <인간소외의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고찰>, 《철학연구》 36권0호, 1995년, 155쪽.

4) 劉云春 <經驗倫理·敘事-解讀羅偉章近年中短篇小說>: 「羅偉章是公認的底層文學代表作家」(《當代文壇》, 2014年 03期, 64쪽) / 張宏 <分裂的鏡城与无望的鄉村 - 羅偉章近作解讀>: 「從這個層面上, 對羅偉章小說的評論經常會聯系到近年來學術聚焦的熱點討論'底層寫作」(《文藝理論与批評》, 2007年 04期, 53쪽)

5) 張松 <羅偉章的'鄉下人進城'題材小說創作初探>: 「由于羅偉章的小說大多以農民或農民工作爲主人公, 且多表現他們的生活和命運, 因此有的評論家便把他的創作称作'底層敘事', 將他列爲'底層寫作的代表作家之一, 甚至把他的小說称之为'苦難小說」(《現代語文(文學研究)》, 2010年 10期, 92쪽.)

피폐화되는 농촌의 이픔을 그려내어 ‘향토작가’로 정의되기도 한다.<sup>7)</sup> 이밖에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교육 제재의 소설도 창작하는데, 주제의 심각성이나 이슈화 정도에 따라 농민공 소설보다 주목은 덜 받지만 신세대 ‘교육소설의 대표작가<sup>8)</sup>’로 손꼽히고 있다. 교육계의 비리, 문제들과 더불어 특히 농민공이 떠나간 후 농촌에 남겨진 그들 자녀<sup>9)</sup>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창작은 그의 ‘농민공 소설’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羅偉章의 중·장편 소설들은 중요 문학상들을 다수 수상함으로써<sup>10)</sup> 평론계와 독자 모두에게 문학과 시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나 출판은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민공의 열악한 삶과 제도적 모순에 관해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관련 논문에서 이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고는 羅偉章의 농민공 소재 소설 작품<sup>11)</sup>을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이후 그들의 삶의 양태와, 특히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 인식에 대한 변화, 즉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농민공이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정서적·문화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 6) 梁海 〈苦難敘述中的精神超越 - 評羅偉章近期的中短篇小說〉: 「或許是因為他對弱勢群體·底層社會給予了更多的關注, 羅偉章的小說常常被掛上‘底層寫作’·‘打工文學’的標籤.」(《文藝理論與批評》, 2010年 第4期, 18쪽.)
- 7) 馬兵 〈新世紀鄉土文學的‘常’與‘變’〉, 《時代文學(上半月)》, 2011年 09期, 222쪽.
- 8) 李志孝 〈教育, 為你流淚為你痛 - 評羅偉章教育題材系列小說〉: 「在中國現當代文學史上, 像羅偉章這樣集中描寫教師, 尤其是中學教師的作家, 除了叶紹鈞, 恐怕還很難找出第二個.」(《文藝評論》, 2009年 05期, 58쪽.)
- 9) 중국어로는 ‘留守兒童’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유수아동’이라 하기도 하고, (농촌)殘留 아동, (부모)별거 아동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 10) 〈飢餓百年〉(第六屆四川省文學獎), 〈我們的成長〉(2004-2005年度中篇小說選刊獎), 〈我們的路〉(2003-2006年度小說選刊中篇小說獎), 〈大嫂謠〉(第五屆四川省文學獎; 第十屆巴金文學院小說獎), 〈奸細〉(2006年度人民文學獎; 第十二屆小說月報百花獎), 〈不必驚訝〉(第二屆四川省圖書獎)
- 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我們的路〉(《長城》2005年 第3期), 〈大嫂謠〉(《人民文學》2005年 第11期), 〈故鄉在遠方〉(《長城》2004年 第5期)은 단행본 《我們的成長》(北京, 作家出版社, 2010年版)에 수록된 작품을 인용하였고, 따라서 본고에서 표기하는 페이지 역시 단행본을 따른다. 〈變臉〉은 발표된 잡지(《人民文學》2006年 第3期)의 페이지이다.

때, 그들의 정체성에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성이란 상당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며, 정체감은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sup>12)</sup>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경우, 특히 열악한 삶의 조건과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소속감이나 존엄을 지닌 '가치 있는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자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자아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혹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또 다른 정체성으로의 변화(다중 정체성, 복수정체성)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피는 것은 그들의 도시 적응과정, 혹은 脫농촌, 脫고향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빈곤 탈출 - 잃어버린 고향

농민공이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게 된 근본 이유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이 특히 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화의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공간이 도시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 역시 도시였기에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 황폐해진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도시로 향했던 것이다. 즉 그들이 고향을 탈출한 직접적인 이유는 빈곤 탈출을 위한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의 실제적 삶의 공간이자 정서적 귀속처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빈곤 탈출 = 고향 탈출 = 고향 상실'이라는 조금은 거친 등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개혁개방과 함께 현대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 3차 산업이 재빠르게 농업의 자리를 대신했고, 이에 따라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중국은 건국 초기 총인구가 이미 5억에 달하였고, 농촌인구는 80%를 훨씬 뛰어넘는<sup>13)</sup> '농촌국가'<sup>14)</sup>였는데, 현대화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2011

12) 미국정신분석학회 저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3) 韓明謨. 《農村社會學》: 「延續了一個世紀以上4億人口記象的中國, 到了建國初期實際上已超過4億, 達到5億. 在總人口中農村人口占到80%以上.」(北京大學出版社, 2002. 43쪽)

14) 費孝通 《鄉土中國》에서 페이사오통은 지난 세기 30년대에서 40년대 중국 향촌과 인접

년 처음으로 도시화율 50%를 넘어서며 도시형 사회로 진입했다.<sup>15)</sup>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고 농업공동체가 붕괴되어가는 커다란 사회변동의 추세 속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화를 중심 목표로 설정한 현대화가 농촌의 상대적 축소와 빈곤<sup>16)</sup>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현재 2억 7천만 명에 육박하는<sup>17)</sup> 엄청난 농민공이 태어났으며,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유동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당사자인 농민공의 극히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인한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자평와(賈平凹)는 현대화 - 도시화에 맥없이 무너지는 농촌과 농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이곳에는 지하자원도 공업도 없다, 유한한 토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후에는 양식 생산량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자 화학비료·농약·씨앗과 각종 세금이 신속하게 올랐고, 농촌은 사회의 모든 압력의 방류지가 되어 관리가 헤이해지자 남은 것들이 와르르 잠겨버렸다. 엮질러진 물처럼 새로운 것이 느릿느릿 차오르지만 잡지 못하고, 사방팔방의 풍향이 변하며 불어오니 농민은 한 무리의 닭이었다. 날개는 뒤집혀 꺾이고 발걸음은 비칠거리며 어쩔 줄 몰랐다.”<sup>18)</sup>

도시를 연구조사한 후, 본질적인 면에서 중국은 ‘향토적(鄉土性的)’이라고 밝혔다.(江蘇文藝出版社, 2007年版, 24쪽.)

- 15) 2007년 말, 중국 전역 도시 인구는 5억9400만 명, 도시화 수준은 44.9%였다. <중국 도시 발전 보고(2007)>(中國網 china.com.cn, 2008년 3월 31일, 文章來源: 中國新聞網) 4년 후인 2012년 8월 14일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과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中國城市發展報告(2012)>에는 2011년 중국 도시인구는 6.91 억 명, 도시화율이 처음으로 51.27%에 달했다고 소개되었다. (<http://www.cssnedu.cn/Caimao/20120820095212.shtml>)
- 16) 1985년 1.9 대 1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2011년 3.13에 달한다. 그러나 농민 수익의 대부분인 생산수단 구매 지출을 빼면 현재 중국의 도농주민 소득차이는 무려 5.2배에 달한다. <中國城市發展報告(2012)>發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研修網》, 2012년 8월 14일.
- 17) 2014년 人力資源社會保障部(인사부) 통계에 의하면 2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 중국 총인구인 13억 6천72만 명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이들 가운데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 6천600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 중 62%를 차지한다.
- 18) 賈平凹《秦腔·后記》: 「這裡沒有礦藏, 沒有工業, 有限的土地在極度的發揮了它的潛力之后, 糧食的產量不再提高, 而化肥, 農藥·種子及各種各樣的稅費迅速上漲, 農村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압력과 모순이 터지는 放流地가 되어버린 농촌은 결국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현대화의 물살에 잠겨 무너져버렸고, 「날개 꺾인 닭처럼 어쩔 줄 모르던」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내고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현금과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도시로 가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집에 남아 있으면, 또 무엇으로 돈을 번단 말인가? ... 단 하나의 길만이 남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바로 궁핍하고 친근한 이 땅을 또다시 떠나는 것이었다. ... 머리는 온통 '어떡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앞에 놓여진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고, 이 길은 절대 가기 싫었다, 허나 가기 싫다고 안 갈수 있는가?... 하지만 나가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도 분명했다.<sup>19)</sup>

개혁개방 이후에는 고향을 벗어나 타지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달라졌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자, 집을 짓고 텔레비전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사를 짓는 것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젊은 인력들은 고향을 떠났고, 이렇게 전통적 농촌은 빠른 시일 내 사라지기 시작했다.<sup>20)</sup>

농민공의 농촌 탈출은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했다.

일반 농민의 삶은 대대로 그리 여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면 고향을 지키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

又成了一切社會壓力的泄洪地，體制對治理發生了弛，舊的東西稀里嘩啦地沒了，像潑出去的水，新的東西遲遲沒再來，來了，也抓不住，四面八方的風方向不定地吹，農民是一群鷄，羽毛翻皺，脚步趑趄，无所适從，他們無法再守住土地，他們一步一步從土地上出走，雖然他們是土命，把命和草撥起來又抖淨了的，根須上的土栽在哪里都是難活。」(北京，作家出版社，2005年 561쪽)

19) 〈我們的路〉 169쪽: 「如果我留在家裡，又凭什么掙錢呢?...覺得惟一的出路，就是再次離開這片親切而又貧瘠的土地。... 滿腦子都是“怎麼辦”，擺在我面前的分明只有一條路，而這條路我實在不想走，可不走行嗎?」176쪽: 「但出門已成定局，這也是我倆心里都清楚的。」

20) 〈故鄉在遠方〉 183쪽: 「到上世紀80年代末期，出門則意味着不再為柴米油鹽發愁，意味着可以蓋房子，買電視。當松林坡的年輕人覺得種田種地根本無法提供給他們幸福的依據時，仿佛一夜之間就從那個世代祖居的村落消失了。」

있더라도 인간이 먹고 사는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예전에 비해 세금이 급등하고 종류가 많아졌으며, 특히 교육 관련 세금이 크게 올랐다.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 농민의 경우 한 달 몇 백元到 달하는 자녀의 교육비<sup>21)</sup>를 마련하기 힘들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교육비 마련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그렇게 힘들게 교육을 받더라도 도-농 교육체제와 수준의 차이 때문에 대학 진학이 어렵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투자한 교육비를 회수할 직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도시노동자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독서무용론(讀書无用論)’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농촌의 경제상황과 이로써 개선, 향상되기 힘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한다. 공부를 계속 하든 그만 두든 두 가지 선택 모두 농촌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길이었다.<sup>22)</sup>

이밖에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벌금을 갚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하는 농민들<sup>23)</sup>이나, 정부의 ‘민심공정(民心工程)’의 일환인 ‘시범촌(示范村)’ 건설 등 개발정책으로 토지와 집을 잃고 강제적으로 고향에서 쫓겨나가는 농민들<sup>24)</sup> 역시 결국 인접 도시로 들어가 노동을 하는 농민공이라는 신분변화를 겪게 된다.

농민공의 도시 진입은 미래를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없는

- 21) 〈大嫂謠〉80쪽 : 「학교는 수시로 수금을 하느라 바빴는데, 그 이유의 많고 괴이함이 여태껏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 학교가 강제로 내게 하는 “잡다한 비용”(학생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은 그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매 달의 각종 소비가 기본적으로 500위엔 이상 이었던 것이다.」
- 22) 劉靜中·康雅迪 〈家園凋敝后的選擇和惆悵 - 從兩份底層文學樣本看底層寫作, 作家責任和底層現狀〉: 「气實也不必驚訝于這股新的讀書无用論, 他們原本的讀書和不讀書都是一體的, 都是爲了逃出農村.」, 《广西職業技術學院學報》, 2015年 第8卷 第2期, 71쪽.
- 23) 〈故鄉在遠方〉183쪽: 「결혼 후 1년, 아내 杏儿은 딸을 한 명 낳았고, 딸이 3살 되자마자 또 남자아이를 한 명 낳아버렸다. 초과 임신으로 인해 벌금으로 1만 6천을 내야만 하였다. 이 1만 6천은 전부 빌려온 돈인데, 조금씩 빌려오던 돈이랑 합쳐져 이미 2만을 초과하였다. 이것은 陳貴春을 극단적인 궁핍 속으로 떨어지게 하여 타지로 나가는 것에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였다.」
- 24) 〈變臉〉 3쪽: 「난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왜 이주해야 하는데? 나는 당신네의 고층건물 따위 필요 없어, 난 여기서 늙어 죽기만 바랄 뿐이야」 ...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다가 그냥 물건을 챙기고 자식들을 끌고 가듯 땅을 떠나 巴河를 가로지르는 교각을 통하여 도시로 들어갔다.」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부의 편중과 이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운명과 고향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한 그들은 더 이상 '토지에 편안히 거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믿지 않고 토지를 떠났고, 토지(고향)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토지에 편안히 거하지 못하면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없고, 하늘의 뜻을 즐기지 못하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不能安土, 不能樂天, 不能樂天, 不能成其身.)」<sup>25)</sup>는 말처럼, 인격의 완성을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과의 연관성에서 찾았던 전통적 인식을 떨치고 도시로 향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 변화와 경험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사일을 떠나 실제로는 농민이 아니지만 호적으로는 여전히 농민이며, 도시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도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半농민 半도시민, 동시에 非농민非도시민이라는 신분정체성의 혼란도 그들을 괴롭힌다.<sup>26)</sup>

### Ⅲ. 도시의 삶 - 정체성의 변화

#### 1. 도시 진입과 정체성 혼란

중국 국민에게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는 전 세계에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기쁨과 감격의 잔치였다.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또 다른 국민들이 있었으니, 바로 농민공이었다. 정부는 환경올림픽을 위해 베이징시 근교의 공장과 건설현장을 문 닫게 했고,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농민공의 이동을 철저히 감시했던 것이다. 이들은 전 국민의 잔치에서 소외된 채 경제적 손해를 입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정서적 상처를 입었다. 노동자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발전한 도시에서 소외되며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25) 《예기(禮記)·애공문(哀公問)》

26) 농민공의 호적상 신분은 '농민'이지만 토지를 떠나 도시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도시 속의 非도시인(城里的非城里人)'이며, 도-농 이원구조(城鄉二元結構)의 제3신분인 것이다. (陳映芳 〈農民工 - 制度安排与身份認同〉, 《社會學研究》, 2005年 第3期 참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도시민도 농민도 아닌 '농민공'이라는 그들의 이름과 신분은 그저 '시대의 가장 침통한 용어(一個時代最沉痛的名詞)'일 뿐이었다.<sup>27)</sup>

빈곤 탈출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는 농민공은 도시노동자에 비해 한참 낮은 수입으로 인간적인 기본적 삶조차 힘들게 되었다.<sup>28)</sup> 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 대우 등 「닭보다 일찍 일어나고, 고양이보다 늦게 잠들며, 노새보다 힘들게 일하지만 돼지만큼 먹지도 못하는」<sup>29)</sup>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존 조건은 「자신의 날개가 도시의 신비한 힘에 의해 이리도 빨리 꺾일지 몰랐던」<sup>30)</sup> 그들에게 좌절을 던져주고 결국 그들의 꿈과 미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도시는 그들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그 꿈이 파괴된 근원이기도 했다.<sup>31)</sup>

농민공의 생존환경은 극히 열악하고 차별적이다. 도시 호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고 달팽이집으로 불리는 '위취(蝸居)'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노동법 등의 근로 보장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은 정당한

27) 량타오쎡(浪淘沙)의 시 〈농민공, 이 시대의 가장 침통한 이름이여(民工, 一個時代最沉痛的名詞)〉: 「서양에서는 중국이 하룻밤 사이에 부상했다고 하지만, 나는 국민경제의 기반을 알고 있다. 수많은 농민공들이 마천루의 초석 아래 고이 잠들어 있음. 헌법 첫머리에 가장 공정하게 쓰여 있듯이 '중국은 노동자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西方說, 中國一夜間崛起了, 但我知道那張國民經濟的底單: 成千上万中國民工, 正長眠在摩天大樓的基礎下, 正如憲法上最公正的開頭: 這是一個以工人階級爲基礎的社會主義國家……)」

28)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천609위안(약 46만 원) 수준인데, 도시노동자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다. 농민공은 정상적인 도시의 공장 근로자인 '工人'과는 달리 비정규직 하층노동자이므로 의료혜택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혜택도 주어지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年中國農民工總量達2.69亿人 月均收入2609元〉, 《中國新聞網》2014年02月20日.

29) 「起得比鷄還早, 睡得比貓還晚, 干得比驢還累, 吃得比豬還差..」〈中國農民工調查: 性壓抑是感情生活的一大痛楚〉, 《瞭望東方周刊》, 2005년 10월 15일.

30) 〈故鄉在遠方〉 186쪽: 「他怎么也沒料到自己的翅膀這麼快就被城市的神秘力量折斷..」

31) 魏紅珊 〈農民進城与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爲例〉: 「城市是夢想開始的地方, 也是夢想破滅的根源..」(《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8年 第6期, 94쪽)

대가도 받지 못한다.<sup>32)</sup>

숙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첫 임금은 바로 잔혹한 구타였다. ... 비록 족쇄를 차지는 않았지만 족쇄는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다.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 메어져 있는 것이다.<sup>33)</sup>

이들은 건축 현장이나 공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도 도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가장 위험한 직종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오랫동안 한다. 이제 갓 부모 품을 벗어난 어린이부터 평안한 노년을 준비해야 할 노인까지 날마다 반복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중노동에 시달린다. 가난 탈출을 위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난 이들의 마음과 정신은 점차 메마르고 무감각해지며 狂氣의 가장자리를 떠돌게 된다.<sup>34)</sup> 폭력과 감금 상태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에 무디어 지며 철저한 절망 외에는 아무 느낌도 갖지 못한다.<sup>35)</sup>

32) 〈故鄉在遠方〉208쪽: 「만약 노동 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 스스로 책임진다. 그는 따지지 않았다, 따질 수 없었다, 따지면 그쪽에서 당신을 쓰지 않는 것이었다. ...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모두 생사합의서였다. ... 하늘이 민공에게 준 유일한 권리는 힘을 쏟든가 피를 쏟든가 였다. 관리자는 당신을 맘대로 내 쫓을 수 있었다. 당신의 계약이든 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말이다.」

33) 〈故鄉在遠方〉214쪽: 「每一个被騙來的人, 到山門外接受的第一筆佣金, 就是慘遭毒打. ... 儘管沒有戴腳鐐, 可鐐銬捆綁在他們的心上, 捆綁在他們精神的深處.」

34) 〈故鄉在遠方〉216쪽: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60세였고, 제일 어린 사람은 겨우 13세 밖에 되지 않았다. 59명이 감옥과도 같은 석산에서 채석하고 있다면 마음은 돌보다 메마르고, 돌보다 무감각해지는 것이었다. ... 20일이 흐르자 열 세 살 되는 어린놈이 미쳐 버렸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끈을 쥐고는 사람만 보면 찢러댔다. ...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광기의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었다.」

35) 〈故鄉在遠方〉215쪽: 「석공들은 변변치 않은 것을 먹고 날마다 16시간씩 일했다. ... 다음날 날이 밝아 줄개들의 채찍에 맞고 일어나면, 온몸 위아래로 검붉은, 검지만한 종기가 생기는 것이다. 그 누구도 집단 반란을 할 생각이 없었다 ... 하루의 24시간 동안,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언제나 손에 흉기를 든 줄개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 (石工們吃粗茶淡飯, 每天干十六個小時. ... 第二天一早, 他們被打手用皮鞭抽打起來之後, 渾身上下長滿黑紅色的, 指頭那么大的疙瘩. 沒有人想過要集體造反. ... 因爲一天二十四小時, 無論吃飯還是睡覺, 都有手持凶器的打手陪伴着他們.)」 216쪽: 「... 여기에서는 시간은 없었고, 계절도 없었고 또한 낮과 밤도 없었다. ... 그저 노동과 수면만이 있을 뿐이었다. 철저한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관심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這裏沒有時間, 沒有季節. 也沒有白天和夜晚, 只有

심지어는 모진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경우도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끼니조차 겨우겨우 연명하기도 하였다. 굶주림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다는 반증이 되었다가<sup>36)</sup>, 이 신체적인 고통은 고독감과 슬픔이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바뀐다.<sup>37)</sup> 도시라는 무인도에서 생활해 왔던 농민들은 이제야말로 그 무인도를 벗어나 도시의 바다 속으로 빠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38)</sup>

그러나 도시의 길과 농촌의 좁디좁은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 陳貴春은 그저 몸을 돌리면 그가 출발한 곳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걸어왔던 길은 구름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도시가 설치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도시가 그를 삼켜버린 것이다.<sup>39)</sup>

농민공에게 도시는 감정을 나눌 이 없는 외로운 절대 孤島이자, 현재와 미래를 삼켜버린 함정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없는 미로였다. 이 낯선 도시에서 노동력만 제공하고 권리도 혜택도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잉여인간 같았다.

하지만 이곳은 남방의 대도시이고, 松林坡가 아니었다. 그가 고향(민간)에서 나고 자라며 배워온 지혜는 여기서는 개똥만큼도 쓸모없었다. 그는 종려나무 밑에서서 길게 한탄하였다: 내가 길을 잃었다! 그 때 그는 정말로 울고 싶었다. 아이

勞動和睡覺. 徹頭徹尾的絕望, 使他們不再關心一切.)」

- 36) 〈我們的路〉 121쪽: 「사방은 어두워 마치 자신이 관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난 배가 고파고, 그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四周黑乎乎的, 我覺得自己像躺在棺材里. 但是我餓了, 這證明我還活着.)」
- 37) 〈故鄉在遠方〉 186쪽: 「그는 배고파서 위벽이 아플 정도였다. 답답한 고통이었다. 마치 여자가 산통을 겪듯, 방향조차 없는 고통이었다. 그저 모호하고, 가까우면서도 또 멀고 먼 듯한 느낌이었다. ... 그는 짐을 메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도시 위를 걸어간다, 고독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자신의 입가로 다가와 그를 익사시키려는 것 같았다.(他餓得胃壁發痛. 悶痛. 如女人臨產, 痛得沒有方向, 只有模糊的, 切近而又渺茫的感覺. ... 他背着包裹, 走在不屬於他的大街上. 孤獨和悲哀一浪接一浪浮到他的嘴邊, 把他淹沒.)」
- 38) 〈大嫂謠〉 107쪽: 「這些平時生活在城市孤島上的農民, 此時此刻才覺得自己離開了孤島, 撲進城市的汪洋里了。」
- 39) 〈故鄉在遠方〉 188쪽: 「...却不知道城里的路与鄉間的狗腸子路是不一樣的. ... 陳貴春以爲轉過身來就能回到他出發的地方, 沒想到他曾經走過的道路, 云一樣飄走了. 他落到了城市設置的陷阱里. 城市吞沒了他。」

처럼 울고 싶었다.<sup>40)</sup>

고향이 아닌 도시는 그들에게 낯설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은 농민에게 처참하다. 도시로 유입된 농민이 맞닥뜨린 것은 단지 생존의 고난 뿐 아니라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정체성의 불안도 있다. 개인의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도시로의 진입은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낯선 문화적 분위기는 “농민공으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저항할 수도 없으므로 ‘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갖게 한다.”<sup>41)</sup>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신과 모호함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결국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을 겪게 한다.

한 마리 풍뎅이가 올라와 그의 입으로 들어가 목구멍을 파고 들어갔고, 검은 발톱이 그의 심장을 긁었다. 그의 심장은 움츠려 그 풍뎅이의 발톱을 피하려 하나, 그러나 그가 한번 움츠리면 풍뎅이의 발톱은 두 배로 조여 왔다. 이 풍뎅이의 이름은 ‘공포’였다.<sup>42)</sup>

그들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좀 더 인간다운 삶과 불안한 현실에 대해 확고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고향을 탈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 신분인 농민공은 도시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존엄을 지닌 개체로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고향을 떠난 뿌리 없는 유랑자의 아픔을 절감할 뿐이다. 농민의 도시 진입은 단지 신체적 공간 이동만이 아니라 현대화라는 의식적 측면에서의 ‘문화이민’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sup>43)</sup>

40) 〈故鄉在遠方〉 188쪽: 「可這是南方的大都市, 不是松林坡, 他從民間生長起來的智慧, 在此狗屁不值. 他站在一棵棕櫚樹下, 長嘆一聲: 我迷路了. 那一刻, 他真想哭. 像孩子一樣哭.」

41) 魏紅珊 〈農民進城與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為例〉,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8年 第6期, 95쪽

42) 〈故鄉在遠方〉 206쪽: 「一只甲虫爬過來, 從他的嘴巴里鑽進去, 通過喉管, 黑亮的爪子夾住了他的心臟. 他的心臟緊縮着, 想避開那甲虫的爪子, 可他緊縮一分, 甲虫的爪子便緊縮兩分. 這只甲虫的名字叫恐懼.」

43) 魏紅珊 〈農民進城與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為例〉: 「農民進城不僅是身體的空間挪移, 也是現代化意義上的‘文化移民’, 亦即鄉村文化記憶不斷遭城市

그는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랐다. 그는 마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것처럼 발길을 멈출 수 없는 듯하였다. 그 목표는 사실 존재하긴 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다. ... 나와서 방랑을 하였지만, 결국 방랑하여 얻은 것은 없었고, 외려 자신이 속하였던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 이곳은 낯선 곳으로, 여기의 모든 것은 陳貴春의 진입을 배척하고 있었다.<sup>44)</sup>

그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맞으며 살아갔던 것은 모두 생존을 위한<sup>45)</sup> 것이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땀 뚀은 노임이 체납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면 해임되었다. 잔혹한 현실 앞에 부자가 되기는커녕 가난 탈출의 꿈조차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도시에서 쏟아낸 땀은 응분의 댓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차가운 배척과 수모를 받으며 존엄성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삶의 고난이 농민공의 경제적 궁핍과 생활의 고통만 조성하지는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정체성의 비친함과 정신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이다.<sup>46)</sup>

중노동·굶주림·분노·억울함·불안감은 미래에 대한 판단도 흐리게 만들어 간혹 막다른 선택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들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저 폭력에 기대게 되는 것이었다. 폭력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의 최후의 보장이 되었다.»<sup>47)</sup> 특히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도시로 이주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노동자로' 성장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부모의 가난과 사회적 신분은 그대로 대물림된다. 도시 학교에서 외래 이주자들에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명목의 교육 관련 비용 때문에 수입이 낮은 가정들은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교

文化吞噬的過程，更是指个体從農民向非農民的轉變過程，其間伴隨着生活方式·價值觀和身份觀的巨變。」(《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2008年 第6期，95쪽)

44) 〈故鄉在遠方〉 187쪽: 「他不知道要往哪里去. 他好像是爲了到達一个根本就不存在的目標, 才不停下他的脚步的. 那个目標事實上是存在的. 那就是要找回他的尊嚴。」... 193쪽: 「他出來闖蕩, 結果沒闖蕩出身么, 却丟掉了屬於自己的社群。」... 206쪽 「這里是陌生的, 這里的一切都排斥陳貴春的進入。」

45) 〈我們的路〉: 「我們站着干活, 跪着做人, 就是爲了看到錢。」

46) 魏紅珊 〈農民進城与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爲例〉: 「苦難不僅造成了農民工經濟的窘迫和生活的艱辛, 更重要的是, 造成他們身份的卑微与精神的扭曲。」(《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2008年 第6期，92쪽.)

47) 〈大嫂謠〉 105쪽: 「当他們苦不堪言的時候, 就只有求救于暴力了. 暴力无奈地成爲了他們活命的最后保障。」

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공의 자제들은 사회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48)</sup>

(농민공의)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나면, 그저 커지기를 바라는 것 뿐 이다.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크면 그들은 신세대의 농민공이 되는 것이다. 이 농민공들은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 자랐기에 고향에 대해선 별 감정이 없어 농촌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 그러나 그렇다고 도시 속으로 섞여 들어갈 수도 없기에 그저 사지가 축 늘어진 상태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담배와 술, 도박과 카드, 입에 쌍욕을 달고 살아간다. 이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도시에 설치한 폭탄처럼 되는 것이다.<sup>49)</sup>

이들 '신세대 농민공'들은 특히 부모세대와는 달리 고향인 농촌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이 약하고, 농민으로서의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신분적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공은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도시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고<sup>50)</sup>, 도시민의 안정과 평화, 문명적 삶을 방해하는 「도시에 먹칠을 하는 존재」로 전락하며 기존 도시민의 편견 가득한 눈길을 받기도 한다.<sup>51)</sup>

도시 인구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각종 기반 시설들은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과부하

48) 〈變臉〉 20쪽: 「他們的子, 很多人從小就輟學, 跼着拖板鞋在街上閑逛, 稍大些, 就酗酒, 抽烟, 買賣毒品, 結伙搶劫, 到最后不是坐監, 就是吃槍子儿。」

49) 〈大嫂謠〉 109쪽: 「那讀的什麼書呢, 不過就是混年齡罷了, 混得手脚上有点兒勁了, 就成爲新一代的農民工. 這些農民工從小在城市生活, 對老家沒有什麼感情了 ... 不願意回去了, 而他們又無法融入城市, 就四肢不靠地蕩着, 小小的年紀, 就抽烟喝酒, 打牌賭博, 滿口下流話, 這樣的人稍不注意, 就會成爲安放在城市的炸彈。」

50) 羅嶼 〈對話梁鴻農民進城后, 反而更加農民化〉: 「農民工', 已經成爲一個包含着諸多社會問題, 歧視·不平等·對立等夏雜含義的詞語, 它包含着一种社會成規與認知慣性.」, 《小康》, 2013年 03期, 51쪽

51) 〈變臉〉 20쪽: 「옛 시가지에 집을 꾸려야 하는 이 농민들은 장사할 돈이 없어서 그저 어깨에 멜대를 지고는 골목과 거리에서 작은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高州城은 성도 급의 문명 도시를 구축하려 했기에 이들이 도시에 먹칠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이들을 봤다면 도시관리원(城管)이 잡아갔다.(這些去老城住安置房的農民, 沒錢做生意, 只有挑着担儿, 占據街頭巷尾做些小生意, 而高州城正在創建省級文明城市, 不許這些人給市容抹黑, 見了他們, 城管就抓.)」

상태에 이르러 교통 혼잡, 부동산 가격 상승,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된다. 농민공에게 제한적 도시자원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도시민들의 적대적 심리<sup>52)</sup>도 그들을 괴롭히는 중요 요인이다.

삶의 가장 기본적 권리와 기회에서의 차별, 적대적 시선과 멸시 등은 농민공의 삶을 힘들게 하며,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은 자아정체성의 변화, 특히 존재감, 미래에의 전망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저한 절망은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채 차라리 목숨을 버리게 한다.

어떤 安徽 사람이 도망치고 ... 뒷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 그 安徽 사람은 두 손을 둘 틈에 끼고 30미터는 되 보이는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 삶을 향한 본능이 그로 하여금 불가사의한 힘을 폭발하게 한 것이었다. ...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고 먼 비명 소리와 함께 安徽사람은 날개가 부러진 새 마냥 추락하여 ...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sup>53)</sup>

그러나 농민공에게는 죽음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기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들은 혼란스러워진다.<sup>54)</sup>

빈곤 탈출의 꿈을 안고 농촌을 벗어나면서 그들은 고향을 상실한다. 그러나 도시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받아주지 않았다.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농촌, 안락한 고향이 될 수 없는 도시, 양쪽 모두에도 속하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도

52) 〈故鄉在遠方〉222쪽: 「물어본 경찰은 또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陳貴春을 몇 번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네놈들처럼 여기 와서 일하는 놈들은 ... 뭐라 해야 하나, 도시가 너희를 포용하면 너희는 도시를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도대체 뭘 짓을 하는 거지? 도둑질에 강도질, 강간에, 살인에! 너희 민공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問話的干警又点上一支烟, 以奇异的目光看了陳貴春几眼, 高聲說: 你們這些來打工的 ... 該怎麼說呢, 城市收容了你們, 你們就該對得起城市, 可是都干了什麼? 偷盜, 搶劫, 強姦, 殺人! 你們這些民工到底在想什麼?)」

53) 〈故鄉在遠方〉214쪽: 「有一个安徽人想逃 ... 朝后山狂奔而去 ...」 215쪽: 「那个安徽人双手攥住石缝, 攀上了七八丈高的绝壁. ... 求生的本能使他爆发出不可思议的力量 ... 话音未落, 随着一声渺茫的惨叫, 安徽人像断翅的鸟一样垂落 ... 消失在永远的寂静里。」

54) 〈故鄉在遠方〉200쪽: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목숨을 버리는 것인가? 내 위로 어르신이, 밑으로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인가?(我有什么資格丟命? 我上有老下有小, 有什么資格丟命?)」

속하는 이들의 신분적 고민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 쌍스런 부랑자가, 꺼져! 陳貴春의 마음속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샌님의 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깨닫게 하였다. 그는 일꾼조차도 아닌, 그저 부랑자일 뿐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왔지만 도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는 결국엔 비천한 부랑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마치 주인 없는 개와 같았다.<sup>55)</sup>

하지만 도시는 네 것이 아냐 ...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도시로 와서 구걸이나 하는 불쌍한 벌레에 불과하지!<sup>56)</sup>

‘쌍스런 부랑자’, ‘주인 없는 개’, ‘구걸하는 불쌍한 벌레’ 등은 농민공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아의 형상이다. 굴욕과 핍박,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삶의 조건, 동료와의 연대감 형성이나 정을 나눌 수 없는 폐쇄적 환경 등은 자신의 가치, 정체성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정체성 상실은 그들의 문화정체성이 확정되지 못했음을, 주체가 사회문화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말해준다. 이는 도시라는 삶의 공간에서 도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속감이 상실됨으로써 초래된 정체성의 위기가 불안이다.<sup>57)</sup>

## 2. 타협과 다중정체성

사람이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규정되는 존재이다.<sup>58)</sup> 인간의 정체성

55) 〈故鄉在遠方〉 219쪽: 「你這個下賤的流浪漢, 滾! 陳貴春的新尖尖激烈地搖晃着, 小白臉的話他明白了自己的身份. 他連一個打工仔也算不上, 他只能是一個流浪漢, 從鄉間流浪到城市, 可城市并不願意接納他, 因此他只能是一個下賤的流浪漢, 像沒有主子的狗。」

56) 〈我們的路〉 123쪽: 「但城市不是你的 ... 你什麼也不是, 只不過是一條來城市里討生活的可憐虫!」

57) 魏紅珊 〈農民進城與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為例〉: 「而身份缺失是指文化身份的不確定, 即主體失去了社會文化的方向定位, 沒有了文化的歸屬感所導致的認同危機. 這種危機多被理解為一種失去方向感·歸屬感的焦慮體驗...」(《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8年 第6期, 92쪽)

58)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출판사, 2006년, 175쪽.



이란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이기도 하고, 아울러 주변 환경, 소속된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아래 형성 발전되는데, 삶의 조건(외부 환경)이 변하면 자아 정체성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그간 현대화 -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궁핍화, 몰락화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원인 규명에 쏟는 관심보다, 그 과정에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물질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만 탈출의 실제 과정과 탈출 후 농민의 정신세계에 발생한 소외현상이나 정체성 변화 등은 관심이 적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고, 羅偉章의 〈我們的路〉, 〈大嫂謠〉, 〈變臉〉, 〈故鄉在遠方〉 등은 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59)</sup> 羅偉章은 농민공의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충실하게 그려냈고, 아울러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도시적 삶과 자본의 논리에 적응해가는 과정, 그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던져진 후 생존의 밑바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자아 상실, 이에 따른 자기 비하 등을 경험했다면, 《故鄉在遠方》의 주인공 陳太學는 세상과의, 자신과의 타협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너무나 가난해서 풀을 묶어 허리띠를 대신하고<sup>60)</sup>, 10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써야했던<sup>61)</sup> 농민 陳太學는 생존을 위해 도시로 와서 농민공이 되었다. 노력과 좋은 기회를 통해 일꾼 15명을 넘겨본 적 없지만 그래도 하청 반장이 될 수 있었다. 「농민공에서 신분을 뒤집어 오늘날까지 오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일」<sup>62)</sup>이었는데, 그가 택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속내를 감추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노예나 개처럼

59) 王銳, 〈物質脫貧与心灵沙化的時代記畧 - 羅偉章〈變臉〉解讀〉: 「可以說, 如何脫貧, 一直是困扰我國广大農民的根本問題. 在漫長而艱難的脫貧路上, 我們留心的焦点是如何擺脫物質貧困, 至于脫貧中和脫貧后, 農民的精神世界發生的异化現象, 却沒引起足够的重視和反思.」(《閱讀与寫作》, 2007年 07期, 10쪽.)

60) 〈變臉〉 7쪽: 「家里那个窮, 袴腰都只能用稻草捆.」

61) 〈變臉〉 7쪽: 「“차용증이라도 쓰고 가져가.” 그는 쭈글쭈글한 공책과 펜 심을 가져왔다. 농촌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는, 한 번도 차용증을 쓴 적이 없었다. 차용증이 필요할 때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你得打張借條. 他摸出一个皺巴巴的本子和一支圓珠筆芯. 鄉里人借錢, 是從不打借條的, 要你打借條, 就是不相信你.)」

62) 〈變臉〉 5쪽: 「如今他能從一个農民工翻身混到今天這一步, 太不容易!」

명령을 따르고 그의 식사부터 마작, 심지어 첩의 용돈까지 바치는 것이었다. 자존심 강한 선량한 농민이었던 자신의 본모습을 버리고 변형시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은 너무도 큰 것이었지만, 돈의 매력은 그 고통까지도 상쇄시켜 주었다. 그에게 돈은 가난한 현실에서의 탈출구이며 구원이었던 것이다.<sup>63)</sup>

작품의 제목‘變臉’은 작가의 고향인 四川 지방에서 특히 발달한 중국 전통 무대 예술의 하나로서, 얼굴에 다양한 색과 문양을 그려 넣어 인물의 생각과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한다. 가난 탈출과 도시에의 적응, 도시민으로서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협하고, 상대에 따라 다른 얼굴과 다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인공과 그의 이야기에 붙여진 제목은 그래서 매우 적절하다.

그는 하청업자라는 역할을 위해 자신이 어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역겨움을 느낄 정도였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다.<sup>64)</sup>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비굴한 웃음을 덮어쓰고, 미칠 듯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그의 얼굴은 우는 듯, 웃는 듯 매우 흥했다.

陳太學가 웃는 것은 보기 싫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는데, 입이 크고 이빨은 검고 누래서 그가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곤 하였다. 종종 陳太學는 정말로 울고 싶었다. 정말로 가슴속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 놓고 싶었던 것이다.<sup>65)</sup>

63) 〈變臉〉 14쪽: 「그러나 돈은 늘 사랑스러운 것이었다. 돈은 하루하루를 지탱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료할 수도 있었다. 피를 흘린 陳太學의 심장에 천천히 딱지가 앉으면 그저 온 마음을 다해 돈을 얻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꼭 張保國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張保國에게 식사를 대접했다.(但是錢畢竟是可愛的, 錢不僅可以用來過日子, 有時候還能療治心靈的傷痛, 慢慢地, 陳太學流血的心口結了痂, 只專心致志地謀劃從掙錢上獲得自己的拯救. 他明白, 要掙到更多的錢, 就必須把張保國服侍好, 因此不停地請張保國吃飯.)」

64) 〈變臉〉 8쪽: 「자기가 張保國앞에서 아침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만 남은 죽이라도 옆에서 먹을거리가 남는 것이다. 이걸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回想着他在張保國面前點頭哈腰的樣子, 連他自己都感到惡心. 但他明白, 他沒有別的選擇, 他只能這樣做. 他這樣做了, 才可能討得一杯殘羹. 這是沒辦法的事.)」

65) 〈變臉〉 16쪽: 「陳太學笑起來就不好看了, 他臉上皺紋多, 嘴闊, 牙齒黑黃黑黃的, 他笑得越厲害, 就越給人一種哭的感覺. 許多時候, 陳太學真是想哭, 眞想把他的心事向

그는 사업권을 얻기 위해, 위로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아래로는 같은 고향 출신의 농민공들을 착취하고 기만과 폭력으로 다스린다. 때로는 너무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놀라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일 뿐이다.<sup>66)</sup>

도시라는 척박하고 살벌한 정글로 내던져진 농민공의 생존을 위한 선택은 다양했다. 〈變臉〉의 陳太學는 도시에 '섞여들기(융화)' 위해 존엄한 인격과 도덕적 양심을 저버린 하청업자로 바뀌었지만, 끝내 순박한 초심을 버리지 않은 인물들이 그의 소설에는 더욱 많다. 때문에 다른 농민공 주인공들과 비교해 '주동적인 악'이 된 그의 선택은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악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규율'과 자본 논리에 대한 비판<sup>67)</sup>, 혹은 부패한 관료가 만들어낸 상황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난이 바로 뒤를 따른다.<sup>68)</sup>

주목할 것은 농민공이 어떤 가난 탈출의 길을 선택했든 그들의 공통점은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비하하든, 혹은 농민도 도시민도 아닌 혼란을 경험하든, 혹은 타협점을 찾아 자신의 다중정체성(복수정체성) 중 한 가지를 꺼내든 그 과정과 결과로 남겨진 것은 피폐해진 정신, 상처받은 자아, 모호해진 정체성이었다.

羅偉章은 농촌과 농민에 집중된 희생과 고난,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현대화 상황을 농민공의 선택과 정체성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다. 때문에 농민공의 고난을 그린 그의 작품들은 「현대성 서사 속에서 옛날 자본주의사회에 충만했던 최악의 원

人訴說...」

- 66) 〈變臉〉 17쪽: 「그는 홀로 현장의 사무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깨우치려 하고 있었다: '너도 농민이고, 똑같이 노동자에서 시작한 몸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위해 변명을 했다. ... (他獨自坐在工地上的辦公室里, 不停地提醒自己: 你也是農民, 也是從下苦力過來的, 可不能對他們胡來. 同時他又不停地爲自己開脫:...)」
- 67) 白浩 〈農村傷疤與新傷痕文學 - 羅偉章論〉: 「如果說陳貴春是被動的惡, 那包工頭陳太學就是主動的惡了. 曾經善良誠實的陳太學怎樣在權力和利益面前卑微求生, 又怎樣一步一步變臉爲凶惡的'老板', 這一過程中的細膩入微讓我們對那貪官張保國·惡商陳太學一步一步的下滑都深深地理解和同情起來, 理解的不是個人, 而是製造惡的規律.」(《當代文壇》, 2013年 第5期)
- 68) 王銳 〈物質脫貧與心靈沙化的時代記畧-羅偉章〈變臉〉解讀〉: 「張保國是現階段腐化官僚的常見形象, 作者寫他, 主要是爲陳太學的'變臉'服務-官'變'了, 民豈能不'變'? 這多少揭示了'腐由官生'·'變自上作'的社會亂相, 而農民工的'變'則更多帶有被逼無奈的因素.」(《閱讀與寫作》, 2007年 07期 11쪽.)

시 자본축적 양식을 당대 중국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조화와 안정·공동 富裕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촉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sup>69)</sup>

#### IV. 귀향 - 또 다른 유랑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sup>70)</sup>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에게 도시란 공동체 일원인 도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다.<sup>71)</sup> 얼마나 도시에 적응되었던지 간에 도시는 농민이 편히 쉬기 힘든 곳이기에 귀향은 농민의 마지막 귀착점이자 유일한 자구책이었다.<sup>72)</sup> 변해버린 정체성과 무너져 버린 자존감은 특히 안락한 귀속처로서의 고향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도시에서는 분명 구더기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안 된다는 것인가? 고향은 날 버리지 않을 거다. 그 빈곤한 토지에서 나는 불쌍한 버려지가 아니다. 진정한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가자,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sup>73)</sup>

69) 張宏 〈分裂的鏡城与无望的鄉村 - 羅偉章近作解讀〉: 「羅偉章作品再次促使我們進行這樣的思考: 在現代性的敘事中, 當代中國如何能够擺脫昔日資本主義社會充滿罪惡的原始積累模式, 實現具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的和諧穩定与共同富裕。」(《文藝理論与批評》, 2007年 04期, 53쪽.)

70)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출판사, 2008년, 150쪽.

71) 〈大嫂謠〉 79쪽: 「하지만 그래도 그는 결국에는 농민이고, 곁에서 속까지 다 농민이라서 도시로 섞여 들어가지 못했고, 도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그를 도시인에 대해 선천적인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게 했다.(但他還是個農民, 從骨子到表皮都是個農民, 他融不進城市, 城市也不願意接納他, 這讓他對城里人有一種天生的畏懼心理。)」

72) 劉亞娟, 〈回家的困境与鄉村現實 - 評羅偉章小說《回家》〉: 「但無論如何, 農民的根在土地, 無論城市化的進程如何發展, 城市里都很難有農民的安身之地. 還鄉是農民的最終歸宿, 還鄉都將是農村及農民自救的唯一道路。」(《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2008年12월 第26卷 第6期, 105쪽.)

73) 〈我們的路〉 124쪽: 「我在城里是可怜虫, 回到老家去還不行嗎? 老家不會嫌棄我, 在

신분적·정서적으로 도시의 이방인인 농민공은 현대화된 중국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졌다.<sup>74)</sup> 도시에서 차별과 수모를 겪은 농민공에게 귀향의 길은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고, 귀향의 과정은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며<sup>75)</sup>, 그들이 찾아가는 고향은 인간이 되돌아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또 고향은 인간이 거기에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sup>76)</sup>

사람은 살아가면서 장소를 의미화하고 아울러 장소는 거기 사는 사람을 의미화한다.<sup>77)</sup> 고향이라는 장소는 내게 생명을 주고 길러주었으며, 아울러 의미를 부여하여 자존감을 가진 개체로 만들어준다.

나는 아내를 껴안고 침대에 걸쳐 앉아 딸도 안았다. 한 가족 세 명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느낌은, 이때야말로 내 몸에서 빠짐없이 부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5년 동안 나는 뿌리 없는 잡초같이 살았는데 오늘에야 뿌리를 되찾았다. 자신이 물을 빨아올리는 소리, 밭아하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5년 동안의 타지 생활의 고통이 전부 파도처럼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 나는 마음속으로도 말하고 있었다: “아빠는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서 굶어 죽는 게 낫지, 다시는 이 마을을 떠나기 싫다!”<sup>78)</sup>

그의 귀향은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자, 또 다른 목적은 잃어버린 존엄과 정체성

那片貧瘠的土地上，我不是可憐蟲，而是一個真正的人！既然如此，我還等什麼呢？走吧，走吧，回家去吧！」

74) 劉靜中·康雅迪, 〈家園凋敝後的選擇和惆悵 - 從兩份底層文學樣本看底層寫作·作家責任和底層現狀〉: 「這種斷裂 ... 已經將農民甩出了整個現代化社會之外。」(《廣西職業技術學院學報》, 2015第8卷 第2期, 70쪽.)

75) 魏紅珊 〈農民進城與身份缺失 - 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爲例〉: 「在城市里飽受歧視和羞辱的農民工原以爲回家之路是一條回歸自我之路, 回家的過程就是重建自我認同的過程。」(《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8年 第6期, 93쪽.)

76)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하이데거연구》 제16집, 2007. 62쪽

77)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출판사, 2006년, 27~28쪽.

78) 〈我們的路〉128쪽: 「我一把將妻子抱住, 坐到床邊上, 又將女兒抱住. 一家三口, 就這么一言不發. 回家的感覺, 這時候才在我身上徹底甦醒. 五年來, 我都是一棵無根的草, 現在我終於找到根了. 我能清晰地聽到自己吮吸的聲音, 發芽的聲音, 五年打工生活的辛酸, 像潮水一樣往後退。」138쪽: 「我心里還在說: 爸爸就算窮死, 也要窮死在家鄉, 我再也不願意離開這個村子了!」

찾기였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무릎이 구부러지며 꿇어앉았다. 타향에서 사장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내 척추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고향의 풍경에 감동을 받아 저절로) 무릎 꿇는 것은 그 척추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었다. ... 장엄한 정적 속에서 나는 고향의 소리를 들었다. ... 또 기적처럼 나에게 존엄과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sup>79)</sup>

한편,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고향은 도시화 - 산업화의 유혹과 타격에 그 가치가 변형되었고, 그것은 장소와의 관계 변화를 의미했다. 피폐화된 농촌은 그들에게서 고향을 빼앗아 갔고, 의미를 상실한 고향은 더 이상 귀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돌아갈 안식처로서 꿈꾸고 그려왔던 고향의 풍경과 문화, 인심은 너무도 변해버렸다. 특히 여전히 빈곤한 농촌은 농민공의 도시 경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피폐해보였고, 중심 노동력이 빠져나가 더욱 황폐해졌던 것이다.

사람의 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밭이 모두 황폐해졌고, 밭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풀과 말라버린 들쭉이 자라있었다. 드문드문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메마른 토지 위에 쭈그리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노인이었고, 간혹 심신이 초췌한 부녀자나 열 살 안 된 어린 애들도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모두 느려서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상처 같았다. 이것이 내 고향이었다.<sup>80)</sup>

노동력이 다 빠져나간 농촌에 남겨진 노약자는 농민공의 도시 노동과는 또 다른 중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미 쇠해버린 기력으로 밭농사와 어린 손자들을 돌봐야 하는 조부모들과 남자들이 하던 중노동과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하는 여인들, 그리고 방치된 채 자라나는 어린이들만 남겨진 것이다. 작가의 눈에 비

79) 〈我們的路〉 139쪽: 「我情不自禁的, 膝蓋一彎就跪了下去. 在外地給老板下跪, 我被打斷了脊梁, 現在下跪, 是要塑造我的脊梁. ... 在庄嚴的靜寂中, 我听到了故鄉的天籟. ... 又能奇迹般地給予我尊嚴和自由.」

80) 〈我們的路〉 138쪽: 「田野憂郁地靜默着, 因為缺人手, 很多田地都拋荒了, 田地里長着齊人高的茅草和干枯的野蒿; 星星点点勞作的人們, 無聲無息地蹲在瘦瘠的土地上. 他們都是老人, 或者身心交瘁的婦女, 也有十來歲的孩子. 他們的動作都很遲緩, 仿佛土地上活着的傷疤. 這就是我的故鄉.」

친 그들은 생기 잃은 황량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다.

비록 고향의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산업화를 위해 착취당하거나, 경제적 필요가 없어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황무지가 되었다. 토지의 파괴와 상실은 바로 고향의 상실이기도 하다.<sup>81)</sup> 귀향한 농민공은 도시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입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가난이 초래한 또 다른 존엄 없는 생활에 맞닥뜨리게 된다.

정말로 나가보니 집이 생각났고, 집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제일 포근한 곳이라 생각되었다. ... 허나 집에 또 돌아오면 막상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도시에서는 존엄과 자유를 찾지 못하면서 고향은 마음껏 준다는 말인가? 발가는 소 한 마리조차 살 수 없으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학비조차 버거우면서, 무슨 존엄과 자유를 말한다는 것인가?<sup>82)</sup>

뿐만 아니라 황무지로 변한 고향의 토지 위에서는 따뜻한 전통과 추억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고향에는 뭐든지 다 있었다. 그런데 예전의 그 따뜻하고 화기에 애한 생기가 없어졌고, 예전의 순박함과 든후한 도덕이 사라졌다」<sup>83)</sup>는 작가의 말처럼, 농촌의 경제 변혁은 자연 풍광의 변화 외에도 사회심리·가치관념·윤리도덕 등 사회문화적인 부분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sup>84)</sup>

「기억과 추억이 상실된 이 뿌리 뽑힌 불완전한 거소는 상자나 구멍일 뿐 집이 아니다.」라는 바슐라르(Bachelard)<sup>85)</sup>의 말처럼 고향은 아직 가족이 남아있지만, 추억과 감정이 거세된 잃어버린 공간이 된 것이다.

81) 張松〈羅偉章的「鄉下人進城」題材小說創作初探〉,《現代語文(文學研究)》, 2010年10期, 93쪽.

82) 〈我們的路〉 175쪽: 「眞的走出去, 又想家, 覺得家鄉才是世界上最美的地方, 最讓人踏實的地方 ... 可是一回到家, 馬上又感覺到不是這么回事了. 你在城市里找不到尊嚴和自由, 家鄉就能够給予你嗎? 連耕牛也買不上, 連小孩子讀小學的費用也感到吃力, 還有什么尊嚴和自由可言?」

83) 羅偉章〈農村永存〉: 「故鄉什么都有了, 就是沒有了以前暖洋洋樂融融的生机, 沒有了以前的純朴和厚道.」(《天涯》, 2004年 第3期.)

84) 陳繼會《二十世紀中國小說文化精神》: 「農村的經濟變革, 帶來广大農民政治態度·社會心理·价值觀念·倫理道德 ... 系列的深刻變化.」(北京, 東方出版社, 2002년 195 쪽.)

85) 바슐라르(G. 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선, 2003년, 107쪽.

羅偉章의 농민공 제재 소설에는 그들의 고난뿐 아니라 고향 상실이라는 또 다른 주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평을 받는다.<sup>86)</sup>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생산기지로 변해 버린 고향이든, 산업화의 물결 바깥으로 내쳐져 황폐하게 낙후된 고향이든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고향의 파괴이자 상실이다.

나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된 곳이지만 이미 낯선 존재로 어색해진 고향은 농민공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지 못했고, 귀향을 통해 꿈꾸었던 자아 찾기도 불가능해보였다. 고향에 대한 귀속감의 상실은 그 곳이 낯선 곳이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잘못 놓여 있다는 느낌'<sup>87)</sup>을 안겨주었다. 그는 타향(도시)과 고향(농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는 유랑자임을 또다시 느끼게 된다.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실상의 홈리스이다.<sup>88)</sup> 농민공은 이런 의미에서 향촌과 도시 양쪽 모두에 진정으로 융화될 수 없어, 결국 두 장소 사이를 떠도는 철저히 뿌리 뽑힌 유랑민인 것이다.<sup>89)</sup>

## V. 맺으며

농민공은 중국의 현대화·산업화·자본주의화·도시화 과정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농촌문제 중 가장 중대한 한가지이다. 그간 중국 정부가 농민공의 노동과 의료, 자녀 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차별과 열악한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진정한 현실은 빈곤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것, 또 그들이 빈곤한 이유는

86) 張宏 〈分裂的鏡城与无望的鄉村-羅偉章近作解讀〉: 「實際上, 在羅偉章的〈我們的路〉·〈故鄉在遠方〉·〈大嫂謠〉等系列小說中, 還隱含着另一个主題, 那就是故鄉的失落. 或者說, 分裂的鏡城与无望的鄉村构成羅偉章作品的一体兩面.」(《文藝理論与批評》, 2007年04期, 52쪽.)

87) 김석희 옮김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살림, 2001년, 15쪽.

88)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출판사, 2008년, 128쪽.

89) 張松 〈羅偉章的'鄉下人進城'題材小說創作初探〉: 「他們離開鄉村寓居于城市, 但他們同時在鄉村和城市兩地都无法真正融入, 變成了一群游离于鄉村与城市之間的徹底失根的游民.」(《現代語文(文學研究)》, 2010年10期, 93쪽.)



먼저 권력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이다. 전자는 이유이고, 후자는 결과이다. 이 때문에 빈곤층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sup>90)</sup>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층민을 위해, 현대 중국의 발전에 주춧돌이자 희생양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발전의 걸림돌이라 푸대접 받는 농민공의 억울함을 위해, 도시와 농촌 모두에 귀속할 수 없는 슬픔을 위해 羅偉章은 대신 글을 쓰는 것이다.

농민공 등 하층민의 삶과 정신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 羅偉章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2014년 7월 30일 중국사회의 최대 모순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온 戶口제도의 개혁을 선포했다. 농민호구와 비농민 호구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이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차별받던 것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sup>91)</sup> 또한 현재에도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호구제도 개혁 작업이 가속되고 있다.<sup>92)</sup>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 주로 법률·제도 등 사회적 분야의 집중적인 노력과 실행이 있었겠지만, 羅偉章처럼 현실의 문제, 특히 농민공 등 하층민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기타 국민과 정치인을 각성시키는 노력 역시 한 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언제나 치열하게 하층민의 고난과 아픔에 천착했기에 그는 「항상 인류 생존의 고난에 대한 사유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sup>93)</sup> 이것은 「문학이란

90) 羅偉章, 〈我不是在說謊(創作談)〉, 《四川文學》, 2006年 04기

91)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는 '住民戶口'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특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의 호구등기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도시의 호구신청 제한이 폐지되고, 인구가 50만~500만 명 사이 도시의 경우 합법적 취업, 안정적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호구를 신청할 수 있다.〈國務院印發《關於進一步推進戶籍制度改革的意見》〉, 《新華網》, 2014年 07月 30日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07/30/c\\_126814162.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07/30/c_126814162.htm)

92)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안후이·광둥·허베이·산둥·산시·윈난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총 20곳에서 자체적인 실시 의견이 마련됐다. 일부 지방 정부는 호구는 없더라도 거주증을 소유한 사람의 자녀가 현지에서 고입·대입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新一輪戶籍制度改革已推行一年〉, 《人民網》, 2015年 07月 23日 <http://politics.people.com.cn/n/2015/0723/c1001-27346184.html>

93) 梁海 〈苦難敘述中的精神超越 - 評羅偉章近期的中短篇小說〉: 「閱讀羅偉章, 讓我感受最深的是他一直以來都沒有放棄過對人類生存苦難的思考. ... 苦難都如影隨形充溢

반드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고,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지녀야만 한다」<sup>94)</sup>, 「당신이 작가임에도 고난의식 없이 글을 쓴다면 좋은 작품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sup>95)</sup>라는 그의 문학관의 결과일 것이다.

혹자는 하층민의 고난과 고통에 편중된 그의 문학적 다양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sup>96)</sup> 그러나 羅偉章이 하층민의 아픔에 눈감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세계는 하나로서, 얼마나 크던 작던 한 부분이 뜯겨져 버리면 ‘전체’도 절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서 예를 든 ‘하층’이 끊어져 버리면, ‘중상층’을 거론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층’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칼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다.<sup>97)</sup>

羅偉章의 농민공 제재 소설이 농민(농민공)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불안과 아픔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을 어루만지려는, 「문학은 일종의 치료이기 때문」<sup>98)</sup>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일 것이다.

在他的話語空間」(《文藝理論与批評》, 2010年 第4期 18쪽.)

- 94) 羅偉章 〈眞實·眞誠与迷戀〉: 「我的文學觀念比較老土, 我覺得, 文學不是用來玩的, 文學必須有所担当, 從事文學的人, 應該具有使命感。」(《文藝理論与批評》2007年 第4期)
- 95) 羅偉章 〈我心目中的小說〉: 「如果你是一个知識分子, 却没有苦難意識, 是相当可悲的; 如果你是一个作家, 沒有苦難意識也是寫不出什么好作品的。」(《当代文壇》2008年, 第4期)
- 96) 梁海 〈苦難叙述中的精神超越-評羅偉章近期的中短篇小說〉: 「近年來, 許多學者對‘底層寫作’的文學性提出了質疑. 作為對底層苦難聚焦的一位作家, 羅偉章的小說也受到了一些批評。」(《文藝理論与批評》, 2010年 第4期, 21쪽)
- 97) 羅偉章 〈我不是在說謊(創作談)〉, 26쪽: 「世界是一个整体, 无所谓大, 也无所谓小, 当某一个環節斷掉了, “整体”也必將不復存在; 比如前文中的“底層”斷掉了, 也就根本談不到“中層”和“上層”. 当我们蔑視和壓榨“底層”的時候, 是在往自己身体上捅刀子。」(《四川文學》, 2006年 04期)
- 98) 羅偉章·姜广平 〈我是一个懵懂的寫作者〉: 「或許正因為有傷痛, 才不得不回頭去舔欲. 說到底, 文學還是一种療治。」(《西湖》, 2013年 08期, 100쪽.)

## 【參考文獻】

- 김석희 옮김,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살림, 2001년.
- 미국정신분석학회 저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년.
- 박찬국 〈인간소외의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고찰〉, 《철학연구》 36권0호, 1995년.
- 박찬국 〈현대에 있어서 고향상실의 극복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하이데거의 교수취임강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1995년 05기.
- 에드워드 펠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출판사, 2008년.
- 윤병렬,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 고향상실과 귀향의 의미〉, 《하이데거연구》 2007년 제16집.
- 임강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1995년 05기.
-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출판사, 2006년.
- 賈平凹 《秦腔·后記》, 北京, 作家出版社, 2005年.
- 費孝通 《鄉土中國》, 江蘇文藝出版社, 2007年版.
- 陳繼會 《二十世紀中國小說文化精神》, 北京, 東方出版社, 2002年.
- 羅偉章 〈農村永存〉, 《天涯》, 2004年 第3期.
- 羅偉章 〈我心目中的小說〉, 《當代文壇》, 2008年, 第4期.
- 羅偉章 〈眞實·眞誠與迷戀〉, 《文藝理論與批評》, 2007年 第4期.
- 羅偉章, 〈我不是在說謊(創作談)〉, 《四川文學》, 2006年 04期.
- 羅偉章, 〈作品的命與運〉, 《時代文學》, 2013年 07期.
- 羅偉章·姜广平, 〈我是一个懵懂的寫作者〉, 《西湖》, 2013年 08期.
- 梁海 〈苦難叙述中的精神超越 - 評羅偉章近期的中短篇小說〉, 《文藝理論與批評》, 2010年 第4期.
- 劉亞娟, 〈回家的困境與鄉村現實-評羅偉章小說《回家》〉,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2008年 12月 第26卷 6期.
- 劉云春 〈經驗倫理·叙事 - 解讀羅偉章近年中短篇小說〉, 《當代文壇》, 2014年 03期
- 劉靜中·康雅迪, 〈家園凋敝后的選擇和惆悵 - 從兩份底層文學樣本看底層寫作·作家責任和底層現狀〉, 《广西職業技術學院學報》, 2015年 第8卷 第2期.
- 劉火 〈堅守鄉村圖景書寫的意義〉, 《當代文壇》, 2008年 04期.
- 李志孝 〈教育, 爲你流淚爲你痛-評羅偉章教育題材系列小說〉, 《文藝評論》, 2009年 05期.
- 馬兵 〈新世紀鄉土文學的‘常’與‘變’〉, 《時代文學(上半月)》, 2011年 09期.
- 方敏 〈一曲悲壯的底層社會人物生活咏嘆調-讀羅偉章小說《大嫂謠》〉, 《信陽農業高等專

科學校學報》，2007年 03期。

白浩〈農村傷疤與新傷痕文學—羅偉章論〉，《當代文壇》，2013年 第5期。

溫長青〈對沉重現實的清醒觀照—評羅偉章的小說〈我們的路〉〉，《名作欣賞》，2006年 22期。

王文初〈剛性的吶喊與柔性的呵護—讀羅偉章小說〈我們的成長〉〉，《當代文壇》，2006年 03期。

王艷麗·朱菊香〈對打工嫂母性精神的贊頌—由羅偉章小說〈大嫂謠引起的思考〉〉，《現代語文(文學研究版)》，2007年 09期。

王銳〈物質脫貧與心靈沙化的時代記象—羅偉章〈變臉〉解讀〉，《閱讀與寫作》，2007年 07期。

魏紅珊〈農民進城與身份缺失—以羅偉章·夏天敏·邵麗的作品為例〉，《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2008年 第6期。

任子江〈農民，在羅偉章筆下的生存狀態〉，《四川教育學院學報》，2008年 06期。

任傳霞〈羅偉章小說創作的心理取向〉，《時代文學(上半月)》，2013年 07期。

張宏〈苦難與成長—對羅偉章幾部中短篇小說的解讀〉，《文學與人生》，2010年 09期。

張宏〈分裂的鏡域與無望的鄉村—羅偉章近作解讀〉，《文藝理論與批評》，2007年04 期。

張松，〈簡論羅偉章的教育題材小說創作〉，《現代語文(學術綜合版)》，2013年 11期。

張松，〈羅偉章的鄉下人進城題材小說創作初探〉，《現代語文(文學研究)》，2010年 10 期。

張學軍〈羅偉章中篇小說創作論〉，《文藝爭鳴》，2008年 06期。

陳映芳〈農民工—制度安排與身份認同〉，《社會學研究》，2005年 第3期。

## 【中文提要】

羅偉章是近年崛起的川籍青年作家，已有多部長篇和中篇面世。他被有關專家稱為“在近年活躍的同輩當中，分量最重，最突出，最值得關注的作家之一。”文學批評界也迅速對他的創作進行反映，進行了諸如‘底層寫作’，‘苦難敘事’，‘教育小說’等的定位和闡述。

他是公認的底層文學代表作家，近几年，評論界對其‘底層寫作’的關注有目共睹，其中一些重要的作品如〈大嫂謠〉，〈我們的路〉，〈變臉〉，〈故鄉在遠方〉等

已成爲‘底層文學’的代表作品被衆多評論家所評論.

他對農民工苦難歷程的描寫, 對普通人在夾縫中生存境遇的刻畫, 以及面對舊有文化秩序的破裂和新的叢林原則的构建, 弱者的痛苦彷徨, 无所依傍, 强者的蛻變, 异化和扭曲, 无不表现出他對社會的關注, 對人生的考量, 對現代生存語境中歸家之路的探尋. 他以平民意識寫出了弱勢民衆的苦難生活, 其中包蘊着對現實強烈的批判精神和對底層人士的深切悲憫. 在城市和鄉村這一現代性二元對立的地域結構之間, 對於‘鄉下人進城’的敘述不僅体现了鄉下人的身份焦慮, 同時也反映了当下中國在現代性進程中普遍存在的社會認同与文化精神方面的困惑与問題.

羅偉章的農民工題材小說的敘述不僅僅限制在農民工, 對中國社會全方位的不安和痛楚都有所表述. 這可視爲是希望能撫慰他們苦楚的, 他的“文學還是一種療治”這信念的結果.

### 【主題語】

농민공, 정체성, 뤼웨이장, 중국, 고향상실, 현대화

民工, 身份認同, 羅偉章, 中國, 故鄉的失落, 現代化

migrant worker, identity, Luo wei zhang, China, loss of hometown, modernization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